

3년물, 연	2,235	-0.00%
환율 (원·달러)	1051.40	-3.30
코스피 (100원당)	983.44	
코스닥	1337.80	
일본닛케이	15,195.77(+391.49)	
WTI(유가)	82.81달러(+0.10)	
한국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위례·동탄·대구 ... 분양가 인상 '러시'

미분양 줄고 '완판' 속출
건설사들 청약 자신감



아파트 분양가가 뛰고 있다. 건설사들이 올초까지 미분양을 우려해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했던 새 아파트 분양가가 부동산시장 회복 분위기를 타고 하반기부터 해당 지역에서 가장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GS건설이 이달 초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한 '위례 센트럴하이' 분양가는 3.3㎡당 1795만원으로 2개월 전 호반건설이 같은 곳에서 선보인 '위례 호반베르디움' (3.3㎡당 1708만원)보다 5% (87만원)가량 높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5월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위례엘코타운 플러스' (3.3㎡당 1680만원)와 비교하면 6.8% (115만원)나 뛰었다. 위례신도시 내 최고 분양가다. ▶관련기사 A4면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최근 분양된 주상복합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의 분양가 상승률은 더 높다. 이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1105만원으로, 올 상반기 같은 지역에서 분양된 '신안 인스빌리베라 2차' (3.3㎡당 995만원)보다 11% 비싸다. 1년 전 동탄2신도시에

2014 월드 그린에너지포럼

▶지상중계 A18,19면



한국경제신문과 경상북도, 경주시 공동 주최로 22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개막한 '2014 월드그린에너지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전시한 일체형 원자로를 살펴보고 있다. 경주=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태양광, 新성장 기회 다시 왔다”

“태양광을 활용한 그리드 패리티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신문과 경상북도·경주시 공동 주최로 22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막을 올린 '2014 월드그린에너지포럼'에서 왕영두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교수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시장으로 태양광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 태양광시장이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태양광산업의 2차 성장기는 2015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드 패리티는 1kW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태양광 발전비용과 화석연료를 사용해 생산한 일반 전력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을 말한다.

방기열 고려대 그린스쿨 대학원 석좌교수도 “2020년이 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 이뤄져 가스, 석탄과 경쟁이 가능해 제3의 에너지원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태양열 수요도 주택용에서 발전용으로 바뀌고 있고 80%를 점유했던 유럽시장 중심에서 중국 인도 미국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미래의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주=특별취재팀

최경환 부총리 취임 100일...한경전문

리더십 '합격점' 구조개혁 '과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방향과 리더십은 일단 합격점.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취임 100일(10월 23일)을 앞두고 22일 각계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은 최 부총리의 지난 100일간의 정책과 리더십에 긍정적인 평가(A등급 24%, B등급 72%)를 했다.

논란이 됐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제외하곤 재정 확대, 금리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수요 진작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이번 설문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책포럼인 한경미래포럼 회원과 한경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경기 회복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응답(54%)이 ‘경기가 살아날 것’(36%)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내년 경성장률 6% 달성 전망도 그다지 밝게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100일 동안의 노력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100일이 훨씬 중요하다”며 “공공·노동·서비스 분야에서 강력한 구조개혁을 시행해야 경제 대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경기 침체 등 해외시장의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 기업 투자 부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만으로는 경기를 반동시키기 어렵다는 진단에서다.

세종=임원기기자 wonis@hankyung.com

5 경제 대도약 5만달러 시대 열자 ▶A5면

“경제혁신 핵심은 기업가 정신”

박대통령, 美 상무장관 면담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22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기업가 정신”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가 정신을 완성하게 해 기업이 투자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세계가 저성장 우려

거론하며 “기업가 정신 대사가 한국의 창업 희망자에게 멘토링을 제공한다면 여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양국 실무부처 간 협의를 제안했다.

PAGE는 미국 내 성공한 기업가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차세대 기업가들과 나누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프리츠커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우리 기업들이 한국산 천강제품(유정용 강판)

“원자력·태양광에 ICT융합 ... 에너지 안전·효율 높여라”

WGEF 경주포럼 첫날

원자력·태양광 세션

“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융합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과 안전을 높여야 합니다.”

22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막한 '2014 월드그린에너지포럼' 토론회에서는 원자력과 태양광, ICT 등 3개 분야의 발전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원자력 관리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접목하고, 광전지와 모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제표준 모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ICT분야에선 전력기술에 신재생에너지, ICT 기술이 통합된 프로젝트가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세션에서는 첫 번째 연사로 나온 원자력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핫토리 다쿠야 원자력산업회의 회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란 정책분야 주제발표를 통해 "대체에너지 가운데 원자력은 신뢰할 수 있고 비용이 싸지만 안전과 폐기물관리, 확산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국가들이 정보교환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 내구성을 강

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사용자가 쉽게 이용·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2011년 31.8기가에서 2050년 49.6기가로 증대하는 등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과 바이오매스, 태양열과 풍력, 연료전환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라드 우조니언 프랑스 방사성폐기물관리청 부장은 '원자력시설 해체와 사용 후 연료 처분 기술사업화'란 주제발표를 통해 "원자력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폐기물이 인간에게 미칠 위험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폐기물의 형태와 지질학 지식, 데이터 등에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가들이 2020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에 원자력 폐기물의 소멸처리 시범설비를 추진하고 2040년까지 완공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세션에서는 국제표준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시스템 ISE연구소의 빌헬름 바르타 책임연구원은 "태양광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제품 측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22일 열린 '2014 월드그린에너지포럼'에 참석한 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왼쪽부터), 김상동 LG CNS 스마트그린사업부 담당, 황우현 한국전력 SG&ESS 처장 등이 토론을 하고 있다. 경주=강은구 기자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광전지와 모듈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국제표준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왕영두 미국 벨라웨어대 교수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시장으로 태양광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 태양광시장이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신성장의 기회를 맞고 있다"

며 "태양광산업의 2차 성장기는 2015년부터 시작되면서 그리드 패리티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드 패리티란 1kw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태양광 발전비용과 화석연료를 사용해 생산한 일반 전력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을 말한다.

ICT세션에서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

요관리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우현 한국전력공사 SG&ESS 처장은 "올름도 같은 섬은 현재 사용 중인 디젤발전기 대신 풍력과 태양광, 매립열, ESS 등을 연결한 마이크로 그리드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마이크로 그리드 방식을 가동하면 큰 추가 비용이 없어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

다"고 강조했다. 김진철 한국전력 KDN차장도 "발전과 송전·변전, 배전 개방뿐 아니라 전력시장 경쟁, 전기차충전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전력분야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력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와 ICT 간 기술적 융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분과 있나

LED·에너지저장 등 추가 ... 7개 분과로 늘어

월드그린에너지포럼 조직위원회는 행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저장·연료전

해외 참가자는

바르타 등 세계적 에너지 전문가 20여명 참석

2014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이 에너지 분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바흐티요르 이

기조연사 인터뷰 이스마일 엘지줄리

"기후변화는 기회 ... 물·에너지·농업 통합하는 개

너지포럼에 참석해 '개도국 관점에서 본

“녹색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만들어야”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英 런던정경대 교수

“녹색 일자리 창출은 미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모델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입니다.”

201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66·사진)는 22일 '2014 월드그린에너지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녹색에너지 분야의 고용 창출 정책과 방향을 제시했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한 과거 경제성장 모델은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만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며 “정부, 기업 및 협회, 노동조합 간 협력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이나 금속 생산 같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갈색 경제에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선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국가 정책 가운데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세금 부과와 녹색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적절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정부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는 데 유연하고, 녹색 일자리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근로자가 배울 수

있도록 얼마나 신속하게 교육을 제공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근로자들이 녹색 일자리를 갖는 데 필요한 기술 교육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최근 국제노동기구가 조사한 연구 결과를 들면서 “세계 21개국 가운데 녹색경제 추진과 녹색 일자리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포괄하는 정부의 정책과 기관 간 조율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기술은 근로자들이 근무의 코스 수습제도, 직장 내 교육훈련 등 일반적 채널을 통해 충분히 습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녹색관행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선 학교에서 저학년 때부터 역사 지리 전통 교과처럼 환경의 발전,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경제와 노동시장이 환경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신사업 기회 발생→녹색산업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녹색기술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에 기여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핵심 요소 기능을 해 녹색 분

야 창업 촉진과 녹색 중소기업 활성화, 녹색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녹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외환위기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됐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 산업인 녹색산업이 새로운 고용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며 “지구촌 녹색 일자리 창출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는...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영국 런던정경대(LSE)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의 ‘탐색 마찰’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만든 공로로 2010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구직자와 고용주가 매칭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의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탐색 마찰’은 노동시장의 고용 공백과 실업을 동시에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등 세계 유수 대학의 초빙 교수로 활동하기도 한 피사리데스 교수는 세계은행 유럽위원회 영국중앙은행에서 고용과 거시 경제 관련 자문관을 지낸 바 있다.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은
개도국 성장·미래 공유
세계가 주목하는 포럼
격년 개최... 올해 4회째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은 올해가 4회째다. 2008년 첫 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이 포럼은 경상북도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세계적인 화두로 던지고 선점해 나가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에너지 관련 국제포럼을 연 것은 처음이다.

도는 국제적인 에너지 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그린에너지 보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및 개발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행사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차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주제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2010년

포럼 이모저모 기업인·연구원 등 1000여명 ‘성황’... 발전용 연구전지 ‘눈길’

“목색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관리 부의장은 특히 개도국 지방정부

‘2014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이 개막한 22일 경주 힐튼호텔 컨벤션홀. 분과별 세션



너지는 자체 설계한 ‘2.5MW급 발전용 연구전지’ 모형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 환영 리셉션에선 포럼 주최기관인 한국경제신문 김기웅 사장이 “글로벌 에너